



-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 2019년 5월 12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8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7지구 - 가좌동 성당



설립 2005년 5월 26일 전화 사무실 031-923-2693-4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391번길 34

제1독서 사도 13, 14.43-52

화답송 시편 100(99), 1-2, 3, 5 (◎ 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묵시 7, 9.14-17

복음 환호송 요한 10, 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요한 10, 27-30

영성체송 요한 21, 12-13 참조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성소자들을 키워내는 힘



최중복 베드로줄리안 신부
해외유학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출발은 하느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형태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성당에 나왔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활 제4주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면서 동시에 성소주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좁은 의미의 성소를 받은 이들, 즉 사제 직분과 수도직분을 희망하는 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부르심에 기쁘고 향구하게 바치기를,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올바르게 봉사하기를 염원하며 기도하는 날이지요.

올해, 우리 교구에서는 교구 창설 이후 최대 인원인, 성소에 응답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아마 청춘을 부르심에 바친 그들의 응답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헌신, 본당의 신부님들을 비롯한 본당 공동체와의 추억들, 성소후원회를 필두로 한 교우들의 도움이야말로 그 응답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 성소자와 그 성소자의 주변 환경,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빛어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귀감이 되는 삶, 그리고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환대야말로 성소자들의 귀를 열어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느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받은 부르심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거기 누가 있는가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물망초가 살고 있다.

동쪽 귀퉁이에 사는 물망초는 불만이 많았다.

허구한 날 물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물방개가 스쳐 가는 것에도 신경질을 부렸으며

심지어 산 그리메가 지나가는 것에도 역정을 내곤 하였다.

그러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즐거움이 많았다.

물에서 살게 되는 청결함에 감사하였다.

어처다 물잡자리가 잠시 들러도 반겨 맞이하곤 하였다.

때론 흰 구름 깃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에도 환희로워하였다.

얼마쯤 지났다.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물파래만 가득 끼었다.

물망초는 꽃은커녕 제자리조차도 물파래한테 빼앗기며 죽어 가고 있었다.

오직 연못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만이 번성하고 있었다.

파란 물 위에 꽃을 피워 띄웠으며 새순을 얻었다.

그러자 지나가는 나비조차도 쉬어 갔고 노을까지도 적셔 들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의 주인이다.

당신 자리가 물망초처럼 되느냐,

수련처럼 되느냐는 당신 하기에 달려 있다. 🌀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어찌다보니 아이가 셋

며칠 전 다섯 식구가 둘러 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켜다. 세상 신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남편 품에 조그맣게 안겨있는 셋째, 이 단란한 풍경을 보고 있으려니 밥 안 먹어도 배 부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아니, 배가 부른다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쓰지 않기로 한다. 만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3년 가까이 배가 불러있던 나는 더 이상의 임신과 출산은 없다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이다.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란 나는 마치 형제가 고팠던 것처럼 내리 삼형제를 낳았다. 만 4세, 2세, 4개월 된 아이 셋을 보고 있으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셋째 임신소식을 알릴 때, 이것은 계획된 일이 아니며 우리 부부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덧붙이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말이었다. 애초에 인간이 삶에서 무엇을 계획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느님만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실 뿐이다.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째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일을 하시는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역시도 그분의 섭리가 뭘까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만두었다. 참을성 없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을 아들 셋 엄마가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 내가 육아라는 긴 터널을 모두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밝혀지게 될 거다. 아니 어쩌면 영영 모른 채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할 필요 없으니까. 다만 어떤 섭리가 존재할 것이리라는 믿음만큼은 간직한 채 살고 싶다. 미성숙한 인격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고통을 온몸으로 맛해보면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온전히 우리 부부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 계획 중 일부이며, 주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이 적잖이 위로가 된다.

작년 이맘 때, 낡은 임부복과 작아져서 못 입는 아이들 옷을 드디어 처분할 수 있다고 좋아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셋째 임신 사실을 알고 다시 고이 접어 넣어두었던 기억이 난다. 결혼하고 산 프라이드 자동차 할부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카시트 세 개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9인승 승합차를 샀다. 4인 가족에서 5인 가족이 되는 것은 단순히 머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5인 중 3인이 영유아일 경우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적게 벌어 적게 쓰자는 모토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시간이든 돈이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남편과 나는 각자의 직장에서 뭐든 시켜만 주십쇼 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끔 둘째 셋째가 태어나기 전, 큰애만 있었을 때의 여유로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언제나 지금이 최선의 삶이다. 매일매일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남김없이 모두 소진하는 삶을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살아볼까 싶다.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예레미야

—

기원전 7세기 말 유다왕국을 괴롭히던 신아시리아 제국(934-609)은 쇠퇴하고 바빌론 제국이 새로운 패권자로 부상합니다. 아직 바빌론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잠시나마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시기도 금세 깨어지고 바빌론의 군화에 유다왕국은 무릎 꿇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임금과 귀족들부터 백성들까지 유다인들은 바빌론으로 유배의 길을 오릅니다(기원전 587년). 마지막 불꽃처럼 번쩍이던 시절부터 절망만이 지배하는 패망의 시기까지, 40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요새 성읍, 쇠기둥과 청동벽이 되어 온 땅에 맞서고,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백성들과 맞선'(예레 1,18) 예언자, 주님의 징벌을 지켜보며 애달파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주님은 찬양 받으소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레미야는 '벤야민 땅 아나돗에 살던 사제'(1,1)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아이'(1,6)일 때 주님의 부르심(1,4-10)을 받고, '민족들과 왕국들을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는'(1,10)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예언자로 세워져, 하느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그 자신도 '헛것'이 된 이스라엘(2,5)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상과 관련된 말과 '돌아오다' '돌아서다' 등 회개와 관련된 말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임금부터 백성까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2,9) '완고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지닌'(5,23)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말과 거짓 신들에게 기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집-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불침의 도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5,12-13; 8,19). 이미 히즈키야 임금 시대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물러난 적(2열왕 19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희망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며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27장). 그러자 거짓 예언자 하난야가 나서서 예레미야를 공박하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28장). 주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건넨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북쪽의 이민족, 바빌론 제국의 군대가 짓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24개의 구절)의 고통을 겪다가 유배(13,19; 20,4,6; 22,22; 27,20; 57,27)의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하난야 같은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임금과 관료들, 사제들, 백성들 모두가 그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주님의 집 총감독'(성전 책임자) 파스후르는 그를 체포해 매질하고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20,1). 성전에서 행한 설교를 들은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그를 붙잡고 사형에 처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26장). 임금은 그가 적어 보낸 하느님의 말씀을 화투불에 태워버렸습니다(36장). 그는 여러 번 체포되었고, 지하의 저수조 동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37,16; 38,6).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11,19)며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우리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11,21)며 협박했고,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12,6). 저주(15,10), 수모(15,15), 소외(15,17), 끝없는 고통(15,18), 아내와 자식도 없는 외톨이(16,1-4), 상가나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처지(16,8-9), 없애려는 음모와 무시(18,18), 죽이려는 흉계(18,23), 고난과 슬픔과 수치(20,18), 실패(25,3 참조)...예레미야의 생애는 철저한 고독과 매서운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말과 글로만이 아니라, 여러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포 띠를 문었다가 찾아오기도 하고(13,1-14), 옹기장이 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18,1-17; 19,1-11). 멩에를 메고 대중 앞에 나서기도 하고(27-28장), 이집트에서는 큰 돌을 묻기도 합니다(43,8-13).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32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임금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항복하자고 말하던 예레미야는 체포되어 갇힙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그는 친척의 땅을 삽니다. 지금은 이러한 고통을 겪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자유로이 땅을 사고파는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배자들의 귀환(24,5-7), 새로

운 계약의 약속(31,31-34), 새로운 임금에 대한 약속(23,5; 30,21; 33,15) 등 그는 절망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에 대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모두로부터 반대 받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그는 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20,14-15) 정도로 분명 예언자는 힘들어했습니다. 다섯 개의 고백록(11,18-12,6; 15,10-21; 17,14-18; 18,18-23; 20,7-18)이 그의 고통을 잘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15,16)이며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20,9)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일단의 무리에 의해 이집트로 강제로 끌려가서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그치지 않고 수행한 것(42-44장)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맞서 반대의 말을 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일일 때, 공공연하게 다수의 의견과 반대의 말을 한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예’ 또는 ‘아니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이, 예레미야 같은 이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 성당 이야기 -

이야기의 시작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이 주보를 보시는 분이면 누구에게나 성당에 대한 첫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 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부터, 청소년기에 친구 따라 성당에 온 사람, 그리고 성인이 되어 성당을 찾은 사람까지, 누구나 '성당이 처음 자신에게 다가온' 나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왔다가, 아니면 신에게 따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처음 성당을 마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성당은 첫영성체 받을 즈음입니다. 형의 첫영성체 교리를 따라 다니다가 꼬사리로

첫영성체를 받았는데, 그때 교리를 가르쳐주신 수녀님과 교리반 친구들, 그리고 교리실의 풍경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첫 기억과 함께 그 후의 일들이 이것저것 생각납니다. 복사단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케이트를 받으려고 1년 동안 매일 새벽 미사를 나왔던 일, 그때 출석 표시를 했던 조그만 수첩, 그 수첩이 걸려 있는 제의방 모습 등등. 그뿐입니까? 중1 때였나요, 영성체하고 자리에 돌아와 친구들과 떠들다가 제대 위로 불려가서 손들고 벌써던 일까지 생각납니다. 그때의 성당은 험리고 지금의 성당이 들어섰건만 나의 창피함은 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성당에 대한 이런 기억들은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첫영성체를 함께 받은 형도 있었고, 그 새벽에는 미사에 늦지 않게 깨워주신 어머니도 계셨고, 그 제대 위에는 나를 가여워하셨을 예수님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당 이야기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의 성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2천년 전부터 세상 곳곳에 세워진 성당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당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당 안에 담겨 있는 그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것이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때를 살았던 성인들과 신학자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을 지었던 사람들, 곧 교황들과 군주들, 그리고 그들의 이상을 표현했던 장인들의 이야기도 가능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두 주에 한 번 뵈겠습니다. 🌐



교구장 동 정

5월	12(주일)	16시	성소주일 "부르심축제" 파견미사 - 신한대학교 뽕엘관
	13(월)	15:30	병원사목부 봉사자피정 파견미사 - 행주 성당
	16(목)	9시	시복시성위원회 교구 현장조사 법정시작 개회선언 - 교구청 회의실
	17(금)	10시	아우구스티노수도회 산토니노 한국순례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18(토)	10:30	직장경찰사목위원회의 날 행사 - 양주2동 성당



교구 소식

2019년 상반기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5/26(주일), 13시~17:30 장소 신앙교육원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반체시오회 회원 가능)
 문의 사회사목국 031-850-1472 접수 5/22(수)까지(연수비 10,000원)
 참조 자세한 내용은 4/18(목)에 게시된 교구 공문(사회19-128) 참조

2019년 청년전례학교(기본과정) 안내

일시 6/1(토) 14시~6/2(주일) 16시 (1박 2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접수 4/4(목) ~ 5/15(수)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누구나(주일학교 청년 교사 포함)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제8차 의정부교구 '선택주말'(CHOICE) 안내

일시 6/28(금) 19:30~6/30(주일) 18시 (2박3일) 장소 한마음수련원 피정의 집
 대상 20세~39세 미혼 젊은이 (선착순 40명) 접수기간 4/21(주일)~6/9(주일)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5/20 (월) 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으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정소희 라파엘라, 장 권 스테파노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군중후원회 5월 월례미사안내

일시 5/15(수) 오전10시 장소 별내성당(남양주시 송산로 121)
 대상 군중후원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미사 집전 김성현 안토니오신부(상승대성당 주임)

'제5회 민족화해분과위원 연수' 안내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장 및 위원 일시 5/25(토) 10시~18시
 접수 ~5/15(수)까지, 선착순 100명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연수비 1만 원(1인) (5/17까지 입금) 문의 031-941-6235~6

제6기 한국교회사 강학회 수강생 모집

한국 교회의 시작인 천전암 강학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사 강의 및 그룹 토의
 일시 6/29(토)~6/30(주일) 양일간 10시~17시 장소 신앙교육원 /수강비 7만 원
 마감 ~5/24(주일), 선착순 40명 마감 문의 031-850-149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사 · 피정 ▶▶

3.4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일일 대 피정

일시: 5/13(월)10시~17시(주교좌성당)

강사/미사: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지구 밤기도회: 의정부1동 성당

일시: 5/15(수) 19:30~21:50

강사: 박해경 데레사 /문의: 010-3790-0496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5/17)

주제: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산다-성인들의 모범

강사: 김대우 모세 신부(수원가톨릭대 교수)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수도생활체험 피정

일시: 5/18 (늦은7시)~5/19(늦은13시)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서울미아리본원)

대상: 성소를 찾는 35세미만 여성

신청: 010-9816-0072, 회비 1만 원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피정: 5/24(금)~6/1(토) /48만 원

효소단식피정: 6/6(목)~9(일) /28만 원

문의: 010-3340-0201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5/17(금)~19(일) 2박3일 /회비없음

장소: 성 빈센트 환경마을

문의: 010-9318-1366

한국 틴 스타와 함께 합니다.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031-952-6324)

일시: 매월 13일 10시~14시 미사(점심 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문산읍 마정로100)

가르멜 성시간

일시: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성당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가르멜 기도학교육

매주(월) 8시 카톨릭플러스친구,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010-4149-1864 carmelcenter.kr

가르멜 청년신앙피정

일시: 매월첫(토) 11시~18시

대상: 20~30대 청년

장소: 서울가르멜수녀원 피정집

문의: 010-4149-1864 carmelcenter.kr

예수수도회 나의 고유한 길찾기 피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만의 개인소명찾기

일시: 5/26(금)~28(일) 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메리워드센터

대상: 33세 이하 여성 /010-9746-1585

성가소비녀회 개별동반피정

연중수시 010-5906-8099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믿음과 함께하는 평화의 삶 /송봉모 신부

일시/장소: 5/15(수) 13:30~16:30 /예수

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어떻게 기도하고 회심할 것인가?

/ 손우배 신부

일시/장소: 5/17(금) 10시~15:10

/예수회센터 /무료, 미사봉헌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하느님의 약속은 2번 /김병로 신부

일시: 5/20(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

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5/19~22(추자도), 5/31~6/2, 6/10~13(추

자도),6/16~19(추자도), 6/22~24, 7/1~3, 7/6~8

접수: 02-773-1463/064-756-6009

[성심교육관] 성모성월 2박 3일 무료 성화대피정

일시: 5/17(금) 22시~19(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차량운행



교육 · 모집 ▶▶

법원리 성당 반주자 모집

신부님 추천서1부, 교적1부

문의: 031-958-0811(마감 5/26)

시스띠나 성가발성교실 회원모집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주1회)

신상옥과 함께하는 생활성가(월) 11시

문의: 02-363-2258

영성학교(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일시: 5/22~6/12 매주(수) 14시~16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당 /회비: 4만 원

강사: 황인수 신부, 전원 신부, 홍성만 신부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2020~21영성코스 사전안내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환경(생태)), 가톨릭

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명

일반및편입학2차전형: 5/20(월)~30(목)

전형일: 6/14(금)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혼인재발견(르트루바이)주말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시: 5/31~6/2

장소: 서울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집

문의: 02-929-2141

인천교구 지혜의 샘(복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일정

장소: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월,수: 성경 맥잡고 둘러보기

화: 성경 통독 길잡이

목, 주말: 말씀치유 낮 기도회

금: 성시간, 말씀치유 철야기도회 19시~04:30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문의: 032-343-1871

www.jwisdom.or.kr

6회 가톨릭문화원(ALMA ART) 어린이영화제 <날개>

일정: 6/29~6/30(1박2일 가족캠프)

신청마감: 5/20 www.koccc.kr

초등학생 50명 (참가비전액 무료)

문의: 1577-3217,010-5717-3217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장소: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본교 성의교정

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

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문의: 02-2258-7723

이메일: dpt6010@catholic.ac.kr

홈페이지: http://welfareg.catholic.ac.kr/

모집기간: 5/13(월)~5/28(화)

면접일: 6/1(토), 14시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의료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정신건강복지학과

여성진급전화 1366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여성진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지역 자

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실시 일시: 5/14(화)

14시~17시 /문의: 031-873-1368

교육비: 무료 /www.ggbb1366.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예수회 인권과 연대 강좌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작은 사람들
일시: 5/24(금) 16:30 /강사: 정혜경 역사학자
문의: 02-3276-7708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장소: 예수회센터 대강의실

2020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수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 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구분: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5/02/28이전 출생)

모집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가톨릭지도 추천전형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6(금)~10(화) 인터넷접수
교리시험/면접: 11/8(금)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cpbc소년소녀합창단 2019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3~초6 첫영성세 받은(2019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6/1(토) 13시, 가톨릭 평화방송 B1 합창단실

접수: 5/30(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2-2270-2291, 010-2650-8014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가회동성당 묘지관리인(계약직) 모집/ 02-763-1570

업무: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묘지관리업무
대상: 세례받고 3년이상, 묘지관리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홈페이지 aos.catholic.or.kr 직원모집안내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자 확인서 /접수: 5/1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
절차: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일시: 6/14(금)~15(토) 오전9:30-오후 5시
장소: 포천 모현의료센터 교육관
모집인원: 선착순 35명
회비: 무료
문의: 031-536-8998

에리코클리닉 봉사자(치위생사) 모집

‘에리코 클리닉’은 2003년부터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해 온 추천교구 사회사목국 소속단체입니다. 최근 진료확대를 위해 치과 치위생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의: 033-264-3547, 010-8684-3547 오세호 신부

안내 · 기타 ▶▶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라파엘여행사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 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33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6/22(토), 7/20(토)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070.4365.7297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통: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11(토) 2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2019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장소: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초4~중2 (모집인원 : 50명)
기간: 7/20~8/18(4주) 비용: 320만 원
전화: 031-207-4982, 010-4442-4982
<http://blog.naver.com/cficengcamp>

55차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

일시: 8/27~9/6 (10박 11일), 42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단)

일정: 8/1(목)~8/6(화) 5박6일
대상: 만(19세~35세), 청년 남녀 15명
경비: 100만 원(항공료 포함)
신청: 02-953-0613 /마감: 6월 중순

제주힐링 성지순례 3일

일시: 5/28, 6/4, 7/12, 8/9, 9/17, 10/15
장소: 제주성지6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10/3 그리스 성지순례 7일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 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 원
6/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 원
7/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 원
문의 : 02-2281-9070 /www.cttour.org

일본성지순례 (가고시마,나가사키,아키타)

출발: 매일 1회, 4박5일 / 64만 원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3 발칸반도 및 메추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8/17 성모발현성지 4개국 13일 39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18(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문의(미혼)	http://isvdb.creatorlink.net	0507-1306-1505
	가르멜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



고해성사(5) :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에페 4,32)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3항)

예수님께 용서 받은 죄인들이 다시 돌아간 곳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를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였고, 그가 받은 용서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들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잃었던 하느님과 의 친교, 그리고 교회와의 친교를 회복하였음을 몸소 체험하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용서받은 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은 그가 속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이를 사랑과 용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마음은 다시 닫히고 굳어져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스며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40항)

고해성사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야말로 그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용서 받은 체험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지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원수를 용서하기에 이릅니다. 기도하는 제자는 변화되어 스승의 모습을 닮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치는 기도의 정점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44항)

이처럼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함으로써 그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사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용기와 용서와 사랑을 통해 세상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